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주제112(2023)년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되었다.

전원회의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제7차전원회의가 제시한 진전목표와 전략전술적 원칙에 따라 국가의 리익과 안전환경을 견결히 수호하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국면을 새롭게 상승시키기 위한 올해의 주요정책집행정형을 중간총화하고 하반기도의 진군로정에서 반드시 대책하고 보다 박차를 가해

야 할 정책적문제들을 토의결정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이 회의에 참가하였으며 당중앙위원회와 내각의 해당 부서 일꾼들, 도, 시, 군인민위원장들, 도농촌경영위원장들, 성, 중앙기관, 중요공장, 기업소 책임일꾼



성과들을 쟁취하였다.

당중앙이 국가경제발전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룩하며 5개년계획 완수의 결정적담보를 구축하기 위한 전인민적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한데 대하여 보고는 개괄하였다.

나라의 농업생산력을 증대시켜 식량의 자급자족을 실현하는것을 관건적인 문제로 내세우고 영농물자보장과 농촌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전망을 열어놓았으며 올해 제시된 알곡고지를 성과적으로 집행할수 있는 조치들을 각방으로 취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들이 방청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전원회의에 참석하시였다. 전원회의는 상정된 의정들을 전원 일치로 가결하였다. 첫째 의정 《올해 주요정책집행을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나갈데 대하여》가 토의되었다.

참가자들은 보고를 청취하였다.

보고에서는 조선로동당과 인민이 상반년간의 간고하고도 격렬한 투쟁 환경속에서 이룩한 혁혁한 성과들이 총화되었다. 그 어느때보다 무모한 광기를 부리는 미제와 남조선피뢰도당들의 군사적 모험책동과 반동공세는 우리 국가의 안전환경과 발전리익을 엄중히 위협하

였으며 우리의 전진에 엄청난 장애를 조성하였다.

비록 주객관적형세는 불리하였지만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인민은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 밑에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투쟁으로 난국을 타개하면서 당건설과 국익수호, 경제건설, 문명건설을 비롯한 각 방면에서 고무적이고 전진적이며 자부할수 있는

석탄, 기계, 림업, 철도를 비롯한 인민경제 주요부문들이 전진할수 있도록 중대조치를 취하고 인민경제계획구실을 강화하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을 세운 결과 년초에 여러 부문에서 나타났던 불안정한 파동성이 현저히 극복되고 경제건설의 각 분야에서 생산장성률이 뚜렷하게 높아지고있다.

(2면으로 계속)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1면에서 계속)

보고는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 점령을 위한 투쟁에서 달성한 성과들을 소개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가 제시한 올해 관계건설목표가 기본적으로 달성되고 평남탄전에서 타오른 사회주의애국란중산운동의 불길은 전국각지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로 대대적으로 파급, 확산되고있으며 경제발전의 쌍기둥인 금속공업과 화학공업부문이 애로와 난관을 완강히 극복하며 높아진 계획을 넘쳐 수행하면서 앞장에서 전진하고있다.

건설부문에서 화성지구 1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을 성과적으로 준공한데 이어 추가된 2,000세대 살림집건설을 끝내고 대평지구 1,400세대 살림집건설을 결속하였으며 새로운 농촌마을들을 련속 일떠세워 온 나라 인민들에게 기쁨과 신심을 안겨주고있다.

현재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과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 강동은실농장건설, 검덕지구 살림집건설도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당중앙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속에서 전체 인민의 심장속에 당의 령도는 과학이고 승리이라는 철석의 신념이 더욱 억세게 자리잡고 총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자력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의지가 전인민적인 사상감정으로 승화된것이야말로 그 어떤 경제적장성에도 대비할수 없는 커다란 성과로 된다.

보고에서는 상반기기간 국가경제정책 집행을 위한 투쟁에서 발로된 일련의 결점과 폐단들에 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분석과 극복방도들이 언급되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농업의 지속적, 전망적발전을 위하여 시급히 수행하여야 할 현실적인 과업들을 중요하게 제기하였다.

보고에서는 상반기기간 경제사업에서 인민경제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는 엄격한 규율을 확립하지 못하고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지 못한 일련의 폐단들이 엄정히 분석되었다.

올해 내세운 높은 투쟁목표들과 전면적발전으로 나아가는 현실은 국가경제의 기둥인 주요공업부문들이 생산에서 편과성을 극복하고 이미 도달한 장성계선을 공고히 하며 보다 기세찬 투쟁으로 경제전반의 새로운 고조를 견인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의도는 기간공업부문을 비롯한 각 부문들에서 추진하고있는 정비보강대상들과 개건현대화대상들을 완공하는데 박차를 가하여

하반년에는 자립경제의 속살을 다지는 의의있는 준공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도록 하여야 한다는것이다.

보고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우리 나라 건설력사에서 공사량이 제일 많은 올해 각 건설지휘부들에서 건설자들의 양양된 투쟁열의에 맞게 건재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설계와 시공의 질을 완벽하게 보장하면서 완강한 공격전으로 공사일정을 드팀없이 밀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평양시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을 청년들에게 통채로 맡긴 당중앙의 숭고한 뜻을 새기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청년들의 고조된 애국열의가 빛나는 위훈창조, 기적창조로 이어질수 있도록 사상정신적으로, 물질기술적으로 적극 고무하고 지원해주는 사업을 책임적으로 잘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현 시기 당에서 중시하는 정책적과업들의 실행정형에 주목하였다.

특히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새로운 육아정책의 집행실태를 상세히 분석총화하였다.

지난 2년간 도, 시, 군들에서 첫생산량을 늘이고 제품생산설비를 갖추기 위한 많은 노력이 경주되었으며 첫째 품을 공급하는 체계와 질서가 정연하게 수립되어 탁아유치원년령기의 모든 어린이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정상적으로 첫째품을 먹을수 있게 된것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기간에 우리 인민들의 생활에서 일어난 제일 뚜렷한 변화의 하나이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육아정책 집행정형을 단위별로, 내용별로 우결함을 정확히 찾아 총화하고 첫째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며 일관성있게 추진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에서는 국토관리, 생태환경보호 사업을 전망적으로, 발전지향적으로 추진할데 대한 문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재정금융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사업을 과학적으로 심화시킬데 대한 문제, 내각이 나라의 경제사령부답게 경제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휘체계, 장악 보고체계를 정연하게 세울데 대한 문제들이 언급되었다.

보고는 자립, 자력으로 국가부흥과 번영의 앞길을 확신성있게 열어나가자면 모든 부문, 모든 분야에서 과학기술발전을 핵심전략으로 틀어쥐고 여기에 주되는 힘을 넣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의 척후병, 주력군인 과학자, 기술자들을 혁명적이며 애국적인 과학

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과학기술인재들을 통일적으로,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기 위한 방도적문제들과 현시기 과학기술발전의 중요목표, 과업들을 제기하였다.

보고는 우주산업의 확대발전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는것이 절박한 과제로 나서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우주분야개척을 위한 초기단계에서 이룩한 과학기술적성과들을 부단히 확대, 장성시켜 전망성있게 우주산업의 개척로를 열고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우주강국으로 일떠세우기 위하여서는 국가적인 우주과학기술잠재력을 총발동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기초하여 최고인민회의에 상정시킬 필수적인 기구적조치를 제기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당과 정부의 정책집행을 보위사업적으로, 법적으로 철저히 담보해야 할 보위, 안전기관들의 사명의 중대함을 강조하고 해당 부문들에서 우리 국가의 불가항력인 일심단결을 견결히 수호하기 위한 사업을 보다 공세적으로, 책략적으로 강력하게 전개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에서는 오늘 달라진 우리 국가의 안전환경에 부합되게 자위력강화에 더 큰 힘을 넣으며 공화국무력이 갖추고있는 무장장비들을 부단히 갱신해나가야 할 당위성에 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분석평가가 언급되었다.

견잡할수 없이 복잡하고 심각하게 변화되는 조선반도안전환경은 우리 국가로 하여금 군사적잠재력의 부단한 갱신과 자위력강화를 향해 더 빠르게 질주할것을 요구하고있다.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대답할것이라는 조선로동당의 엄숙한 선언에 따라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력강화를 위한 핵심과제들을 성공적인 실체로 전환시킨 실천적인 행동들은 나날이 고도화되는 우리의 급진적인 전략무력건설속도와 강력한 군사기술력을 시위하고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 괴뢰들을 불가극복의 안보위기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우리 공화국 전략무력이 고도화된 군사기술력에 있어서나, 무기체계발전속도에 있어서나 자라가 공인하는 진보를 이룩하고 현존하는 위력적실체로 장성강화되고있는 좋은 성과들을 평가하고 반면에 일각에서 나타난 간과할수 없는 결함들도 엄정히 총화하였다.

보고에서는 위성발사준비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한 일군들의 무책임성이 신랄하게 비판되었으며 해당 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이 막중한 사명감을 깊이

명심하고 이번 발사실패의 원인과 교훈을 철저히 분석하고 빠른 시일안에 군사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함으로써 인민군대의 정찰정보능력을 제고하고 우주개발분야에서 더 큰 비약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지름길을 마련할데 대한 전 투적과업이 제시되었다.

핵, 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무기체계 개발부문에서 이룩한 모든 성과들은 나라의 핵전쟁억제력강화의 중요한 고비에서 크게 내짚은 훌륭한 결실로 된다 고 확인하면서 정치국은 국방부문에서 당중앙이 제시한 핵무기발전방향과 핵력량증강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강력한 핵무기증산실적으로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을 억척같이 보위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에서는 우리의 인내와 경고를 무시한 적대세력들의 무분별한 전쟁도발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안전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있는데 대해 심각히 분석 평가되고 이에 군사기술적으로, 정치외교적으로 예민하고 기민하게 대응하여야 할 절박성이 언급되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적들이 의도적으로, 로골적으로 고취하는 군사적긴장격화책동에 대하여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며 항상 압도적이고 공세적인 대응조치들을 지체없이 강력히 결행해야 한다고 인정하였으며 전원회의는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과 대응방식들을 일치가결로 승인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격돌하는 국제군사정치정세에 대처하여 미국의 강도적인 세계패권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련대를 가일층 강화하는것을 비롯하여 대외활동을 철저히 국권수호, 국익사수의 원칙에서 자주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벌려나가기 위한 중대과업들을 제기하였다.

보고는 오늘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혁명과업과 주객관적환경의 절박한 요구에 맞게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비상히 높여나가는데서 필수적인 문제들을 언급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상반기기간에 당의 질적공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당조직들의 전투력과 활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당사업에서 시급히 극복하여야 할 결점들을 분석총화하였다.

보고에서는 새시대 5대당건설로선을 관철하는 사업을 강력히 조직전개하여 당의 건전한 정치풍토와 발전을 확고히 담보하기 위한 새로운 당조직들이 언급되고 올해 투쟁목표와 전략적과업관철에서 각급 당조직들이 주력해야 할 사업방향이 명시되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최악의 난관

속에서도 전당과 전체 인민이 일치단합된 힘으로 분발하고있기에 우리 혁명은 반드시 새로운 발전국면으로 이행하게 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올해 투쟁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함에 더 박차를 가하며 부여된 사명과 중임을 드팀없이 과감하게 떠메고나갈것을 호소하였다.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을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 확실한 상승의 궤도로 줄기차게 인도할수 있는 방략들이 제시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보고에 전체 참가자들은 우렁찬 박수으로써 전적인 지지찬동을 표시하였다.

첫째 의정에 대한 토론들이 있었다. 전원회의는 둘째 의정 《교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획기적조치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전원회의는 셋째 의정 《각급 인민위원회 일군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전원회의는 넷째 의정 《인민주권강화에서 나서는 문제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전원회의는 다섯째 의정 《당규률건설을 심화시키기 위한 중요대책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전원회의는 2023년 하반기도 투쟁과업의 철저한 집행을 위한 적극적이고 세부적인 대책을 기안하며 의정도의과정에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심의하는 분과별 연구 및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최종확정한 결정서초안들을 전원회의의 승인에 제기하였다.

전원회의는 해당 결정서들을 전원일치로 채택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여섯째 의정으로 조직문제를 토의하였다.

참가자들의 높은 정치적각과 열의속에 우리 혁명을 획기적으로 전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정책적문제들이 구체성, 전문성, 혁신성을 띠고 진지하게 토의결정된 전원회의 확대회의는 올해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투쟁목표들이 김정은원수님을 수위로 하는 당중앙에 대한 전체 인민의 열화같은 총성심에 의하여 빛나게 달성되리라는것을 확신하면서 자기 사업을 마쳤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 확대회의는 경에 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총성으로 받들어 조선로동당의 전투적위력을 백방으로 다지며 응대한 투쟁목표실현을 위한 과감한 총진군을 줄기차게 가속화해나갈 전당의 노도와 같은 열의와 전진기상을 다시금 힘있게 과시한 중요한 정치적계기로 된다.

본사기자

#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의 도약대를 마련한 뜻깊은 계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5돐, 조국해방전쟁 승전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공화국력사에서 특기할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빛내일 드높은 열의를 안고 온 나라 인민이 과감한 투쟁을 벌이고있는 속에 얼마전 공화국에서는 올해의 주요정책 집행정형을 증강총화하고 올해의 중요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

전원회의에서는 5개년계획 완수의 결정적담보를 구축하고 국가의 전면적부흥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2023년 상반기 기간 당 및 국가행정기관들의 사업정형과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이 총화되고 편향들을 바로잡아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확신성있게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이 명확히 제시되었다.

회의에서는 공화국의 건설력사에서 공사량이 제일 많은 올해에 완강한 공적전으로 공사일정을 드림없이 밀고 나갈데 대한 문제, 새로운 육아정책을 완벽하게 집행할데 대한 문제, 근로관리, 생태환경보호사업을 전진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문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재정규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사업을 과학적으로 심화시킬데 대한 문제, 내각이 나라의 경제사범부담계 경제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휘체계, 장악보고체계를 정연하게 세울데 대한 문제, 과학기술발전을 핵심전략으로 틀어쥐고 여기에 주되는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 우주산업의 확대발전을 국가적사업으로 강력하게 추진할데 대한 문제, 대외활동을 철저히 국권수호, 국익사수의 원칙에서 자주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벌어나갈데 대한 문제 등을 사회주의건설을 획기적으로 전진시키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정책문제들이 진지하게 토의결정되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토의결정된 문제들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실현에서 판관적의의를 가지는 세번째 해에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새롭고 상층을 위한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투쟁방략들이다.

하기에 지금 전원회의소식에 접한 공화국인민들은 승리의 신심과 굳센 의지를 갖지 않고 온갖 도전과 장애를 건부시며 올해를 기어이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만들기 위한 드높은 맹세와 애국의 열의로 가슴끓이고있다.

《우리의 전진회의정신을 발동하고 자기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견인기,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의 역할을 자각하고 인민을 위한 일에서 주도성, 창조성, 활동성을 적극 발휘하겠다.》

《당앞에 다진 맹세를 기어이 관철하겠다는 정신만 있으면 어떤 방대한 목표도 실현할수 있다. 바로 이것이 사회주의에국단중산운동과 더불어 굳어진 우리의 배심이며 우리는 그 투철한 각오와 의지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매진할것이다.》

《우리 작업반이 맡은 몫을 다해야 우리 직장이 합치게 전진할수 있고 우리 련합기업소가 당앞에 다진 맹세를 지킬수 있다. 우리는 작업반에 맡겨진 계획을 일별, 순별, 월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는것이 바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 결정관철에 이바지하는 길이라는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겠다.》

《당에서는 올해 제시된 일과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는 조치들을 각방으로 취해줄것이다. 당의 이 믿음과 사랑을 뼈에 새기고 우리의 힘과 의지를 분투로 전야마다 기어이 풍요한 가을을 펼쳐놓겠다.》...

이들을 가나 들을수 있는 이 힘찬 결의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가리키시는데로만 하면 반드시 좋은 결실이 이루어진다는것을 실생활을 통하여 때때로 절감한 공화국인민들에게서만 울려나올수 있는 웨침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10여년간 공화국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지도로 얼마나 눈부신 발전의 길을 걸어왔는가. 력사적인 병진로선이 제시되고 구현되어 불과 몇년만에 국

가해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이 이루어졌다. 오늘 우리 공화국의 국위는 사상최대로 펼쳐지고 이 땅에는 위대한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 강국의 새시대가 펼쳐졌다.

공화국인민들에게 최상의 문명을 안겨주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리상과 탁월한 령도, 위민헌신에 의하여 창조와 건설의 대변영기가 펼쳐지고 인민을 위한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과 행복의 보금자리들이 일떠서 인민의 웃음소리는 강산에 차넘치고있다.

인민경제의 자립적도태는 더욱 강화되고 어디서나 중산의 동음이 높이 울리고있으며 농촌진흥의 새시대가 펼쳐지고있다.

올해 상반기기간에만도 극난한 환경속에서 팽목함만한 성과들이 이루어졌다.

나라의 농업생산력을 중대시각 식량의 자급자족을 실현하는것을 관건적인 문제로 내세우고 영농물자보장과 농촌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전망을 열어놓았으며 올해 제시된 일과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었다.

또한 건설부문에서 화성지구 1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을 성과적으로 준공함에도 이어 추가된 2000세대 살림집건설을 끝내고 대평지구 1400세대 살림집건설을 계속하였으며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과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 강동은실농장건설, 검덕지구 살림집건설이 힘있게 추

진되고있다.

뿐만아니라 농촌진흥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는 현대적이고 문화적인 살림집들이 이르러는 곳마다 일떠서 사람들에게 새집들이기쁨을 안겨주고있으며 인민경제발전과 전략물력의 고도화와 현대화사업에서 커다란 진보가 이루어졌다.

이 모든 성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공화국인민들은 당의 리상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곧 과학하고 승리하는것을 철석의 신념으로 간직하였고 총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자력번영의 활로를 열어 나갈 의지에 넘쳐있다.

뜻깊은 올해를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당겨오기 위한 행로에서 또 한번 도약하는 위대한 변혁의 해로 빛내일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투쟁방략들이 제시된 이번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를 통하여 인민의 이 신념과 의지는 더욱 확고부동한것으로 되었다.

하기에 지금 공화국의 전체인민들은 더 큰 신심과 락판에 넘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철세위원의 현명한 령도따라 공화국인민들은 뜻깊은 2023년을 조국정사에 또 하나의 불수령으로 되는 위대한 승리의 해로 빛내일것이다.

본사기자 주 일 봉

가 없었다고 한다. 하여 끝내는 《추운 겨울에 씻지도 먹지도 자지도 못하며 갈 곳도 없다. 3일간을 길가에서 보내고 레일이 오는것이 두려워 자살을 선택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하직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비극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남조선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은 이룰수 없는 것으로 되었다.

꿈도 이루어져야 진짜 좋은 꿈이다. 그렇지 않고 꿈이로만 그친다면 공허한 꿈이고 도저히 손으로 잡을수 없는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남조선같이 인간세상의 덕과 정이 마르고 오직 돈만 아는 세상에서는 언제라도 인민들의 그런 꿈이 이루어질수 없다. 그래서 가진 자들의 세상인 남조선에서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고 사회의 어둠을 밝히려고 각계가 지쳐서 저주와 항거의 불길이 매일같이 타오르는 것이다.

꿈도 이루어지려면 꼬여 위주는 사랑의 손길만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꿈도 시들고 인생도 메말라버리게 된다.

한두사람의 꿈만 아닌 인

민들의 꿈.

우리 공화국에는 그 꿈을 꽃피워주는 크나큰 사랑의 손길이 있다.

인민들의 살림집문제해결을 국가정책순위의 제일 앞자리에 놓고 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탁월한 령도의 손길이 있어 공화국에서는 행성의 다른 곳에서는 볼수 없는 오직 이 땅에서만 볼수 있는 희한한 새집들이 불수 없이 매일같이 펼쳐지고있다.

한두명도 아닌 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웃음지고 사랑의 새 보금자리에 출저어 들어서서 행복의 풍경, 너무 기쁘 새집들이하는 곳마다 펼쳐지는 출판, 여기저도 출저어서도 춤, 모두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제일처럼 기뻐하고 더 밝은 미소를 그려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덕을 노래하는 모습...

5만세대 살림집건설이 한창인 수도에서만이 아니다. 지방마다, 농촌마다 누구나 보면 감탄하고 부러워하는 새집들이 날마다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 수많은 주민들이 새집을 받아안았다는 소식이 련속 전해져 지금 온나라는 말그대로 매일같이 명절처럼 흥성이고있다.

조선로동당 만세!》를 북메어 부르고 또 부른다.

화성구역 화성1동 촬영식

농장원들에게 하신 인사

주제109(2020)년 8월 어느날이었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피해지역 인민들에 대한 걱정으로 밤을 꼬박 지새우시고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어 친히 운전대를 잡으시고 큰물이 채 찌지 않은 은파군 대청리로 야전차를 달리시었다.

발목까지 잠기는 감랑길도 주저없이 걸으시며 수재민들의 생활안정과 피해복구를 위한 온정어린 조치를 거듭 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귀로에 오르시었을 때였다.

폭우에 의해 여기저기 물웅덩이들이 나 있는 곳을 헤쳐나가던 야전차는 그만 길설의 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게 되었다. 심하게 기울어지는 야전차, 거듭 공회전하는 차바퀴, 그럴수록 더욱 치켜 내리는 차액...

하나 몇 안되는 일꾼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수 없었다. 그때 어떻게 알았는지 10여명의 농장원들이 어푸러질듯 달려왔다. 그렇게 달려와서는 온통 흙탕물로 얼룩진 야전차를 보고는 너무도 억이 막혀 울음조차 터치지 못하고 그대로 진창속에 뛰어들었다.

모두가 한참이나 신고해서야 야전차는 빠져나왔다. 바로 그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차문을 열고 내리시더니 정말 수고를 하였고, 고맙다고 하시며 몸소 인사를 하시는것이였다.

농장원들과 헤어져 돌아가시는 길에 몇번이나 차를 멈춰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절절한 음성으로 오늘 차가 진창에 빠지다니 인민들을 도와 주러 왔다가 오히려 신세를 지고 간다고 겸허히 말씀하시었다.

깊은 밤에 확정해주신 적지

몇해전 8월 어느날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양덕군의 온천지구에 종합적이고 현대적인 본보기온천문화휴양지를 꾸리실 구상을 안으시고 그 적지를 확정해주시며 머나먼 밤길을 달리시어 양덕군을 찾으신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피로도 무시 사치없이 일꾼들을 부르시어 군안의 친척지구에 꾸려져있는 료양소들의 운영실태와 온천리용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곳곳에는 주변경치가 뛰어나고 사람들의 건강과 병치레에 효과가 대단히 좋은 온천지들이 적지 않지만 휴양 및 료양시설담배 위생문화적으로 온천하게 꾸러진 종합적인 봉사기지가 없다고, 며칠동안 여러모로 따져본 결과 그중 유리한 지역으로 평가된 양덕군의 온천지구를 현직고찰하고 몇몇개 하나 지으려고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양덕군 온천리일대의 온천물들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본사기자

오늘의 이 행복을 그 누가 주었나 로동당이 주었네 수령님이 주셨네 김일성원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 목숨도 바쳐가리 오직 한 마음 ...

지금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시때부터 기쁨속에, 행복의 눈물속에 누구나 즐겨 불려온 이 노래가 아침에도 울리고 저녁에도 울리고있다. 자고나면 또 전해지는 감동들은 사랑의 전설, 아침에 《로동신문》을 펼쳐보면 한가득 실리는 인민의 재부가 늘어나는 기념달린 새 소식들.

사랑하는 우리 인민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귀하신 영상으로 숭엄히 새겨안으시고 모든것을 인민의 복리를 위함으로 철저히 복종지향 시켜나가는 이 세상 제일 위대한 인민사랑의 정치가이시며 이 나라의 자애로운 김정은원수님.

우리 인민모두를 따듯이 안아 보살펴주고 지켜주고 내세워주는 넓고넓은 사랑의 품속에서 살림집에 대한 소원만이 아니라 소중한 모든 꿈이 이루어지고 인민은 고마움에 겨워, 행복에 겨워 《김정은원수님 만세!》를 북메어 부르고 또 부른다.

# 이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진다

- 인민의 보금자리로 일떠선 새 거리들을 보며 -

얼마전 우리 가정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그 어디나 속속들이 어려있는 화성지구의 아름답고 환율한 새 거리에 보금자리를 펴는 꿈같은 행복을 받아안았다.

살림집리용허가증을 손에 쥐고 승강기문을 나서 15층의 우리 집을 열고 들어서니 덩실하고 아늑한 집안의 전경이 펼쳐졌다. 이방저방을 돌아보고 부엌의 수도꼭지 등을 살펴보면 당의 사랑에 목이 매여 눈곱이 젖어 올랐다. 나라를 위해 별다른 일도 없는데 이런 훌륭한 새집을 우리 가정에 무상으로 안겨주다니, 정말 눈물이 나도록 고마웠다.

이번에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1만세대가 새집에 입사하였다.

나라에서 준 새집에서 꿈같은 나날을 보내며 즐겁게 출근길에 오르고 또 밝은 모습으로 퇴근하여 아파트승강기에 오르는 사람들속에는 내가 아는 화초사업소 노동자도 있고 국장 관리인이 있으며 어느한 사업소에서 회계원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다. 실로 각이한 직종과 연령의 해아릴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행복을 받아안은 것이다.

인생에서 제일 큰 기쁨의 하나가 보금자리를 마련한것이라는데 이 기쁨을 무엇이 라고 다 표현할수가 없다.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다 주시는 우리 원수님의 사랑이 하도 따듯

하고 극진하니 1년전까지만 해도 허허벌판이던 화성지구에 1만세대가 사는 행복의 큰 거리가 솟아났다.

정말이지 우리 세상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사회주의 대가정의 자애로운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날마다 복을 누리며 기쁨과 화지, 랑만과 회회에 넘쳐 고무하게 사는 행복의 락원이다.

당의 웅대한 수도건설구상에 따라 지난해에 송화거리와 보통강강안다락식주래구가 일떠선데 이어 올해에 화성거리와 대평지구에 사회주의 변화가들이 련이어 일떠서 평범한 근로자들이 새 거리의 주인, 새 보금자리의 주인이 되는 희한한 풍경이 펼쳐졌다.

특히 송화거리와 화성거리에 일떠선 현대적인 살림집만 해도 무려 2만여세대에 달한다.

2만여세대의 살림집, 이것을 어찌 수자로만 그 크기를 다 헤아릴수 있으랴.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속에서도 인민을 위해 마련해준 또 하나의 크나큰 선물을 이어서, 달과 해가 바뀔수록 더욱 커만 가는 우리 인민의 행복이면서 누구나 뜨거운 격정속에, 눈물속에 바

라보는 소중한 2만여세대 살림집이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지만 국가가 평민들에게 새집을 무상으로 안겨주는 나라는 우리 나라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집없이 한지에서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 헤아릴수 없이 많다.

나라에서 2만여세대의 가정들에 새집을 무상으로 안겨주는 것은 인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조국 이 아니고서는 어디 가서 볼수도 없고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이 행성의 기적같은 현실이다. 그것은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행복의 큰 재부이다. 어머니 우리당이 인민을 위해 마련해준 산갈이 큰 재부이다.

이런 생각이 가슴을 울려 주는데 문득 어느한 출판물에서 큰 글이 떠올랐다.

지난해 남조선에서 국소수 특권층 100명이 무려 2만여세대에 달하는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있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몇몇 부자들이 평균 한명당 200세대의 주택을 독차지하고있는셈이다.

특권층들은 이렇게 많은 집들을 무력으로 사들여 부동산투기행위에 리용하면서 저들의 돈주머니를 불구고있

었다.

한쪽에서는 국소수의 부자들이 이렇게 많은 집들을 사들여 《주력왕》 등으로 불리며 무리 투기행위를 하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헤아릴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방황하고있는것이 남조선의 비참한 현실이다.

남조선에서는 집값이 너무 비싸고 날마다 폭등하여 일반평민들은 집을 살 엄두를 못낸다고 한다. 한센로록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을 한푼도 쓰지 않고 꼬박꼬박 모아 사 다 투자해야 집 한채를 겨우 장만할수 있다고 하니 제 집 마련이 하늘의 별따기 인것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전체 주민세대의 45%가 집이 없이 남의 집 세방살이를 하거나 움막, 비닐막막집, 집합판자집, 천막과 같이 집 아닌 집에서 살고있다고 한다. 또한 수많은 청년들이 집이 없어 결혼을 포기하고 인생마저 포기하고있다.

돈이 사람위에 있는 남조선에서는 집을 많이 지어도 평민들은 돈이 없어서 집에 들어갈수가 없다. 그래서 빈집이 그렇게도 많다. 이것이 바로 황금민들의 씩어빠진 남조선사회이다.

오죽했으면 남조선의 언론들도 《이 땅에 아바트는 많지만 하늘이세 서민들이 불편히 누을 공간은 어디에도 없다.》 《수많은 무주택자들이 불안한 매일을 두려워하고있다.》고 개탄하고있었다.

그러나 이런 사회에서 집을 2만세대, 설사 20만세대, 200만세대를 지은들 무슨 소용이 있었는가.

한쪽에서는 100명이 2만여세대이상의 살림집을 독차지하고 돈벌이를 하며 평범거리고있을 때 인구의 근 절반이 집이 없어 한층만 쉬고 눈물을 흘리는 남조선이야말로 비뚤어지고 단단히 비뚤어진 사회, 부익부, 빈익빈의 색은 세상이 아닐수 없다.

재부는 인민이 창조하는데 몇몇 특권층과 재벌들이 그 재부를 제 주머니에 다 건어 넣고 사회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근로대중은 늘 생계위협을 당하고 앞날에 대한 불안속에 살아야 하는 슬막한 남조선사회.

인간생지육인 그곳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한다. 한 청년이 어머니와 함께 어떻게 해서나 살아보려고 모 지름을 썼지만 도저히 살수

가 없었다고 한다. 하여 끝내는 《추운 겨울에 씻지도 먹지도 자지도 못하며 갈 곳도 없다. 3일간을 길가에서 보내고 레일이 오는것이 두려워 자살을 선택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하직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비극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남조선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은 이룰수 없는 것으로 되었다.

꿈도 이루어져야 진짜 좋은 꿈이다. 그렇지 않고 꿈이로만 그친다면 공허한 꿈이고 도저히 손으로 잡을수 없는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남조선같이 인간세상의 덕과 정이 마르고 오직 돈만 아는 세상에서는 언제라도 인민들의 그런 꿈이 이루어질수 없다. 그래서 가진 자들의 세상인 남조선에서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고 사회의 어둠을 밝히려고 각계가 지쳐서 저주와 항거의 불길이 매일같이 타오르는 것이다.

꿈도 이루어지려면 꼬여 위주는 사랑의 손길만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꿈도 시들고 인생도 메말라버리게 된다.

한두사람의 꿈만 아닌 인

민들의 꿈.

우리 공화국에는 그 꿈을 꽃피워주는 크나큰 사랑의 손길이 있다.

인민들의 살림집문제해결을 국가정책순위의 제일 앞자리에 놓고 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탁월한 령도의 손길이 있어 공화국에서는 행성의 다른 곳에서는 볼수 없는 오직 이 땅에서만 볼수 있는 희한한 새집들이 불수 없이 매일같이 펼쳐지고있다.

한두명도 아닌 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웃음지고 사랑의 새 보금자리에 출저어 들어서서 행복의 풍경, 너무 기쁘 새집들이하는 곳마다 펼쳐지는 출판, 여기저도 출저어서도 춤, 모두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제일처럼 기뻐하고 더 밝은 미소를 그려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덕을 노래하는 모습...

5만세대 살림집건설이 한창인 수도에서만이 아니다. 지방마다, 농촌마다 누구나 보면 감탄하고 부러워하는 새집들이 날마다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 수많은 주민들이 새집을 받아안았다는 소식이 련속 전해져 지금 온나라는 말그대로 매일같이 명절처럼 흥성이고있다.

본사기자

오늘의 이 행복을 그 누가 주었나 로동당이 주었네 수령님이 주셨네 김일성원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 목숨도 바쳐가리 오직 한 마음 ...

지금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시때부터 기쁨속에, 행복의 눈물속에 누구나 즐겨 불려온 이 노래가 아침에도 울리고 저녁에도 울리고있다. 자고나면 또 전해지는 감동들은 사랑의 전설, 아침에 《로동신문》을 펼쳐보면 한가득 실리는 인민의 재부가 늘어나는 기념달린 새 소식들.

사랑하는 우리 인민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귀하신 영상으로 숭엄히 새겨안으시고 모든것을 인민의 복리를 위함으로 철저히 복종지향 시켜나가는 이 세상 제일 위대한 인민사랑의 정치가이시며 이 나라의 자애로운 김정은원수님.

우리 인민모두를 따듯이 안아 보살펴주고 지켜주고 내세워주는 넓고넓은 사랑의 품속에서 살림집에 대한 소원만이 아니라 소중한 모든 꿈이 이루어지고 인민은 고마움에 겨워, 행복에 겨워 《김정은원수님 만세!》를 북메어 부르고 또 부른다.





#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을 모시어

공화국인민의 반제투쟁력사는 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어 가장 강고한 조건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의 전통을 창조하고 대를 이어 계승하여 영광스러운 역사이다. 이 성스러운 로정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령도 밑에 공화국이 조국해방전쟁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미제국주의를 타승하는 군사적적적을 이룩한것이다.

일제의 식민지기반에서 갖 해방된 조선인민들을 높이 모시어 청순한 공화국에 있어서 미국이 강요한 지난 조선전쟁은 실로 너무도 힘에 겨운 전쟁이었으며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사생결단의 싸움이었다.

당시 미국은 조선전선에 현대기술장비로 무장한 자기나라 특군의 3분의 1과 공군의 5분의 1, 태평양함대의 대부분 그리고 15개의 추종국가군대와 남조선군 및 구일본군잔당들을 포함하여 무려 200여만의 대병력을 동원하였고 수많은 군사비와 군수물자를 들이밀었으며 세계전쟁사에서 일찌기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야만적인 군사작전과 전쟁방법을 다 적용하였다.

하지만 그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써도 영웅적조선인민을 굴복시킬수 없었으며 전쟁사상 가장 비참한 패배를 면치 못하였다.

공화국이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미국을 타승하고 위대한 전승신화를 창조할수

있을 결정적요인은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를 받았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앞에 준엄한 시련이 닥쳐왔던 시기에 력사적인 방송연설을 하시고 전체 인민을 원수미제와의 판가리결전으로 불려일으키시었다.

그리고 갠도전, 비행기사냥군운동, 땅크사냥군운동, 저격수조활동, 독립중기조활동, 적후파괴조활동 등 세계전쟁사가 알지 못하는 독창적인 전법들을 창조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전법들은 나라의 지형조건과 인민군대의 무장장비, 현대전의 특성에 맞는 과학적인 전법이었으며 수적, 기술적우세에 의존하고있던 침략자들에게 패배를 안기고 조선에서의 승리를 안아온 중요한 요인으로 되었다.

하기에 《전쟁과 미국》이라는 미국도서의 갈피에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볼 때 미국은 명성높은 장군들을 한 두명 파견하여 전쟁의 승리를 획득하는데 승판되어왔다. 그러나 조선전쟁은 미국의 장군들을 패배시키는 무덤이었다. ...상대면 북조선군총수 김일성장군이 30대의 젊은 장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으로써도 영웅적조선인민을 굴복시킬수 없었으며 전쟁사상 가장 비참한 패배를 면치 못하였다.

공화국이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미국을 타승하고 위대한 전승신화를 창조할수

최고이신 회세의 전설적명장이시었다.

전선의 병사들이 대학으로 소환되어 총을 펜으로 바꾸어 쥐는 현실이 펼쳐지고 과학원이 창설되었으며 무상치로제를 실시할데 대한 내각결정이 채택되는 등 전설같은 일들이 생겨날수 있는것은 수령님의 인민사랑의 세계, 전쟁승리에 대한 확신과 락관을 떠나 생각할수 없는것이였다.

전쟁이 한창이던 주제 40(1951)년 1월 어느날 파괴된 평양시내를 부강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지금부터 평양시를 일떠세울 준비를 잘해야 하겠다고, 우리는 이 재더미를 밀어버리고 새로운 평양,

현대적이고 아름다운 대도시를 일떠세워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아마 우리가 전후복구건설을 설계한다는것을 전선동무들과 인민들이 알면 큰 힘이 될것이라고, 반대로 미국놈들이 이것을 알면 기겁을 하고 나가자 빠질것이라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전후복구건설의 휘황한 설계도, 그것은 미제가 100년이 걸려도 다시 일떠서지 못한다면 전후의 공화국이 패배를 헤치고 짧은 기간에 복구건설을 끝내게 한 요인으로 되었다.

전화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견고결심한 화신철리길은 인민에 대한 사랑

페에 대하여 가능할수 없었던 엄혹한 시기에 휘황한 조국건설계획과 그 준비사업이 추진된것은 승리할 래일에 대한 확신과 미래에 대한 락관, 자기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을 지닌 위인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엄두도 낼수 없는 대우단이었다.

전후복구건설의 휘황한 설계도, 그것은 미제가 100년이 걸려도 다시 일떠서지 못한다면 전후의 공화국이 패배를 헤치고 짧은 기간에 복구건설을 끝내게 한 요인으로 되었다.

전화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견고결심한 화신철리길은 인민에 대한 사랑

페에 대하여 가능할수 없었던 엄혹한 시기에 휘황한 조국건설계획과 그 준비사업이 추진된것은 승리할 래일에 대한 확신과 미래에 대한 락관, 자기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을 지닌 위인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엄두도 낼수 없는 대우단이었다.

전후복구건설의 휘황한 설계도, 그것은 미제가 100년이 걸려도 다시 일떠서지 못한다면 전후의 공화국이 패배를 헤치고 짧은 기간에 복구건설을 끝내게 한 요인으로 되었다.

전화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견고결심한 화신철리길은 인민에 대한 사랑

페에 대하여 가능할수 없었던 엄혹한 시기에 휘황한 조국건설계획과 그 준비사업이 추진된것은 승리할 래일에 대한 확신과 미래에 대한 락관, 자기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을 지닌 위인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엄두도 낼수 없는 대우단이었다.

전후복구건설의 휘황한 설계도, 그것은 미제가 100년이 걸려도 다시 일떠서지 못한다면 전후의 공화국이 패배를 헤치고 짧은 기간에 복구건설을 끝내게 한 요인으로 되었다.

전화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견고결심한 화신철리길은 인민에 대한 사랑

페에 대하여 가능할수 없었던 엄혹한 시기에 휘황한 조국건설계획과 그 준비사업이 추진된것은 승리할 래일에 대한 확신과 미래에 대한 락관, 자기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을 지닌 위인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엄두도 낼수 없는 대우단이었다.

전후복구건설의 휘황한 설계도, 그것은 미제가 100년이 걸려도 다시 일떠서지 못한다면 전후의 공화국이 패배를 헤치고 짧은 기간에 복구건설을 끝내게 한 요인으로 되었다.

전화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견고결심한 화신철리길은 인민에 대한 사랑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 락적인 일시적후퇴를 하던 주제39(1950)년 10월 어느날 최고사령부가 옥전을 떠나 다음날 목적지로 갈 때였다. 평안북도 녕변군의 어느한 고개에서 짐을 가득 싣고 북으로 가는 소달구지행렬을 보던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차에서 내리시어 달구지입자인 로인에게 어디서부터 오는가고 물으시었다.

어때때문에 물으시는분이 누구이신지 알수 없었던 로인은 석함한 목소리로 강원도에서 들어온다고 대답을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척 놀라와하시며 소달구지에 후퇴하는 인민군대의 군수물자를 가득 싣고 험한 먼길을 오는 로인의 수고를 헤아려주시었다. 그러시고는 로인에게 손수 담배를 권하시고 불까지 붙여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황송하여 어쩔바를 몰라하는 로인에게 이 깊은 밤에 어디로 가는가고 물으시었다.

로인은 북으로 간다고, 군대 동무들과 같이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간다고 말씀드리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잠

우리 인민군대가 전쟁에서 이길것같은가고 물으시었다.

로인은 확신에 넘친 목소리로 이기고 말구요,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데 무슨 걱정이겠소, 아끼지요 라고 대답드리었다.

지적을 분간하기 어려운

민군대는 인민을 믿고 당파 인민, 군대가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싸우는 이것이 우리 제도를 지키고 전쟁에서 승리할수 있는 제일 큰 힘이라고, 당파 인민과 군대가 한데 뭉치면 이 세상에 무서울것이 없다고 힘있게

우리 인민의 신념을 꺾기 위해 제놈들이 다 이긴것처럼 떠들어대며 최고사령부에 대해 별 의견을 내지 않았고 있는 준엄한 시기에라도 자기의 수령과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이러한 인민이 있는한 적들의 그 어떤 발악적인 공격에도 능히 좌절시키고 위력한 총방격의 길을 열어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히시었다고 감회깊이 회억하군 하시었다.

준엄한 전화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어 우리는 이긴다는 불같은 신념을 토로했던 범동농민.

정녕 조국해방전쟁시기 공화국인민과 인민군용사들의 심장속에 맥박친것은 위대한 수령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던 만민이 승리하며 공화국은 영원히 빛나는 역사의 신비였다.

강 철 민

《...때로는 날아드는 적의 파편에 약기가 부서지고 몸이 찢겼고 때로는 방금전까지 곁에서 노래부르던 배수가 뒤를 따르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적의 포화를 짓누르며 승리의 노래소리를 높이 울렸다.

바로 그 길이 내 그토록 갈망하던 배움의 길, 새 조선을 노래하는 음악가가 되려던 꿈을 현실로 앞당기기 위한 길이라고 굳게 믿었기때문이었다.》

이 글은 공화국인민들 누구나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가요 《조선인민군가》, 《나는 알았네》를 비롯한 많은 명곡들을 창작한 의용군출신의 이름난 작곡가의 수기집에 쓰여 있는 한 대목이다.

공화국의 품에 안겨 인생의 참다운 삶을 누린 의용군출신의 로병들속에는 작곡가 라곡만이 아닌 김일성장군관인이며 로력영웅이었던 시인 오영재, 적의 화구를 가슴으로 막고도 기적적으로 살아나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강사, 관장으로 로당의장한 공화국영웅 김성진, 위대한 천리마시대에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선구자로 이름떨친 진원환,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져있는 안영재를 비롯하여 오늘날도 력사가 알고 민족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돌이켜보면 그러할 거릴처럼 했던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오로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공화국이야말로 운명도 미래도 말길 참다운 조국이라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간직하고 의용군입대를 탄원해나신 남조선청년들의 예극열로 이 땅은 얼마나 뜨겁게 달아올랐던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1950년 7월 5일부 《로동신문》은 《해방된 공화국남반부

사람들은 지금도 잊을수 없어 위외부군 한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준엄한 전화의 나날 피땀을 흘려 조국에 바치려고 용감 떨쳐나선 의용군입대자들을 만나주시며 동무들이 인민의용군에 탄원한것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적장거로 된다고, 우리는 동무들의 애국적정신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시곤 하셨다.

그후에도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따뜻한 사랑과 믿음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인생의 행복을 꽃피우며 값높은 삶을 누리였다.

의용군출신 병사들의 영웅적위훈을 값없이 빛내주신 남조선청년들의 위대한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를 형제처럼, 집처럼 여기고 무작정 따라나섰던 13살의 남녘소년 정춘모, 아버지수령님의 초상화를 가슴에 소중히 품고 전선의 날까지 용감히 싸운 어제의 어린 병사가 삼가 올린 편지에 다음과 같은 가슴뜨거운 친필을 새겨주시었다.

《수령님의 영상사건을 심장 깊이 모시고 승리를 위해 싸운 로병들에게 소고한 경의와 전투적인사를 드립니다.

건강하여 새세대들에게 고귀한 투쟁정신, 50년대 영웅정신을 그대로 이어주시 바랍니다.

김 정 은  
2013 8 14》

정명 인생의 갈림길에서 주저없이 공화국의 품을 선택한 그 마음을 위훈으로, 애국으로 귀중히 내워주시는 위대한 아버지의 품이 있어 의용군출신 로병들의 삶은 길이 빛나는 것이다.

황 은 옥

사람들은 지금도 잊을수 없어 위외부군 한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준엄한 전화의 나날 피땀을 흘려 조국에 바치려고 용감 떨쳐나선 의용군입대자들을 만나주시며 동무들이 인민의용군에 탄원한것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적장거로 된다고, 우리는 동무들의 애국적정신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시곤 하셨다.

그후에도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따뜻한 사랑과 믿음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인생의 행복을 꽃피우며 값높은 삶을 누리였다.

의용군출신 병사들의 영웅적위훈을 값없이 빛내주신 남조선청년들의 위대한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를 형제처럼, 집처럼 여기고 무작정 따라나섰던 13살의 남녘소년 정춘모, 아버지수령님의 초상화를 가슴에 소중히 품고 전선의 날까지 용감히 싸운 어제의 어린 병사가 삼가 올린 편지에 다음과 같은 가슴뜨거운 친필을 새겨주시었다.

《수령님의 영상사건을 심장 깊이 모시고 승리를 위해 싸운 로병들에게 소고한 경의와 전투적인사를 드립니다.

건강하여 새세대들에게 고귀한 투쟁정신, 50년대 영웅정신을 그대로 이어주시 바랍니다.

김 정 은  
2013 8 14》

정명 인생의 갈림길에서 주저없이 공화국의 품을 선택한 그 마음을 위훈으로, 애국으로 귀중히 내워주시는 위대한 아버지의 품이 있어 의용군출신 로병들의 삶은 길이 빛나는 것이다.

황 은 옥

## 장군님을 찾아가는 길

시 말씀을 잊지 못하고 밤마다 호르는 밤하늘가를 바라보시다가 이 란리통에 김일성장군은 왜 찾아가는가 다시 물으시었다.

그 말씀에 로인은 대뜸 장군님을 찾아가야 살길이 열리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지 않겠는가 말씀드리었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런데 로인님의 생각에는

잡잡한 밤 이 나라의 평범한 농민이 스스럼없이 한 말은 그대로 싸우는 조선인의 진정이고 신념이었다.

로인을 정경게 바라보시며 호탕하게 웃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 전체 인민이 우리 당과 공화국을 믿고 인민군대를 따라나서기때문에 우리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고, 인민들은 당과 인민군대를 믿고 당파 인

말씀하시었다.

로인과 헤어지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나오신 령길을 오래도록 뒤돌아보시다가 일군들에게 우리 인민은 다 이렇다고, 얼마나 좋은 농민인가, 저런 인민을 가지고있기때문에 우리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를 잊지 못하시어 원수들이

이렇듯 미국에 의해 조선전쟁이 일어나자 온 나라는 《조국보위의 노래》를 높이 울리며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는 전민항쟁의 싸움터로 변하였으며 공화국인민은 그 가렬한 전장에서 피와 살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싸우는 불굴의 투사들로 되었다.

당시 조선전쟁을 종군한 오스트랄리아의 한 기자는 전체 인민이 성전에 떨쳐나선 이 경이적인 사실에 경탄하여 《이 기이한 전쟁》이라는 소책자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전쟁이 시작된 최초의 여섯 주사이에 120만명의 청년남녀들이 조선인민군 지원병부대 또는 빨찌산부대에 자원하였다. 그 가운데 40만명은 남에서 온 사람들이였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의 전투적호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전국적범위에서 벌어진 전선탄원운동은 다시는 제국주의노예가 되는것을 원치 않는 조선인민의 민족자주정신의 분출이었으며 목숨보다 더 귀중한 나라와 민족의 자존권을 빼앗으려는 침략자들에게 대한 활화산같은 분노의 폭발이었다.

리 일 현

## 진정한 조국은 공화국이기에

《...때로는 날아드는 적의 파편에 약기가 부서지고 몸이 찢겼고 때로는 방금전까지 곁에서 노래부르던 배수가 뒤를 따르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적의 포화를 짓누르며 승리의 노래소리를 높이 울렸다.

바로 그 길이 내 그토록 갈망하던 배움의 길, 새 조선을 노래하는 음악가가 되려던 꿈을 현실로 앞당기기 위한 길이라고 굳게 믿었기때문이었다.》

이 글은 공화국인민들 누구나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가요 《조선인민군가》, 《나는 알았네》를 비롯한 많은 명곡들을 창작한 의용군출신의 이름난 작곡가의 수기집에 쓰여 있는 한 대목이다.

공화국의 품에 안겨 인생의 참다운 삶을 누린 의용군출신의 로병들속에는 작곡가 라곡만이 아닌 김일성장군관인이며 로력영웅이었던 시인 오영재, 적의 화구를 가슴으로 막고도 기적적으로 살아나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강사, 관장으로 로당의장한 공화국영웅 김성진, 위대한 천리마시대에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선구자로 이름떨친 진원환,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져있는 안영재를 비롯하여 오늘날도 력사가 알고 민족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돌이켜보면 그러할 거릴처럼 했던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오로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공화국이야말로 운명도 미래도 말길 참다운 조국이라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간직하고 의용군입대를 탄원해나신 남조선청년들의 예극열로 이 땅은 얼마나 뜨겁게 달아올랐던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1950년 7월 5일부 《로동신문》은 《해방된 공화국남반부

사람들은 지금도 잊을수 없어 위외부군 한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준엄한 전화의 나날 피땀을 흘려 조국에 바치려고 용감 떨쳐나선 의용군입대자들을 만나주시며 동무들이 인민의용군에 탄원한것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적장거로 된다고, 우리는 동무들의 애국적정신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시곤 하셨다.

그후에도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따뜻한 사랑과 믿음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인생의 행복을 꽃피우며 값높은 삶을 누리였다.

의용군출신 병사들의 영웅적위훈을 값없이 빛내주신 남조선청년들의 위대한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를 형제처럼, 집처럼 여기고 무작정 따라나섰던 13살의 남녘소년 정춘모, 아버지수령님의 초상화를 가슴에 소중히 품고 전선의 날까지 용감히 싸운 어제의 어린 병사가 삼가 올린 편지에 다음과 같은 가슴뜨거운 친필을 새겨주시었다.

《수령님의 영상사건을 심장 깊이 모시고 승리를 위해 싸운 로병들에게 소고한 경의와 전투적인사를 드립니다.

건강하여 새세대들에게 고귀한 투쟁정신, 50년대 영웅정신을 그대로 이어주시 바랍니다.

김 정 은  
2013 8 14》

정명 인생의 갈림길에서 주저없이 공화국의 품을 선택한 그 마음을 위훈으로, 애국으로 귀중히 내워주시는 위대한 아버지의 품이 있어 의용군출신 로병들의 삶은 길이 빛나는 것이다.

황 은 옥

사람들은 지금도 잊을수 없어 위외부군 한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준엄한 전화의 나날 피땀을 흘려 조국에 바치려고 용감 떨쳐나선 의용군입대자들을 만나주시며 동무들이 인민의용군에 탄원한것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적장거로 된다고, 우리는 동무들의 애국적정신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시곤 하셨다.

그후에도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따뜻한 사랑과 믿음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인생의 행복을 꽃피우며 값높은 삶을 누리였다.

의용군출신 병사들의 영웅적위훈을 값없이 빛내주신 남조선청년들의 위대한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를 형제처럼, 집처럼 여기고 무작정 따라나섰던 13살의 남녘소년 정춘모, 아버지수령님의 초상화를 가슴에 소중히 품고 전선의 날까지 용감히 싸운 어제의 어린 병사가 삼가 올린 편지에 다음과 같은 가슴뜨거운 친필을 새겨주시었다.

《수령님의 영상사건을 심장 깊이 모시고 승리를 위해 싸운 로병들에게 소고한 경의와 전투적인사를 드립니다.

건강하여 새세대들에게 고귀한 투쟁정신, 50년대 영웅정신을 그대로 이어주시 바랍니다.

김 정 은  
2013 8 14》

정명 인생의 갈림길에서 주저없이 공화국의 품을 선택한 그 마음을 위훈으로, 애국으로 귀중히 내워주시는 위대한 아버지의 품이 있어 의용군출신 로병들의 삶은 길이 빛나는 것이다.

황 은 옥

## 모든 힘을 전쟁승리를 위하여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탁월한 령도를 따라 전체 조선인민이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 결사의 항전을 벌인 전쟁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방송연설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에 접한 공화국의 방방곡곡에서 전선탄원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전쟁이 개시된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6월 27일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이 결

기대회를 열고 그 자리에서 2 800여명의 남조선청년학생들이 전선출동을 결의함에 이어 불과 3~4일동안에 평양공업대학, 평양사범대학, 평양음악학고, 평양미술학고, 평양농업전문학교, 평양철도전문학교, 녕변잡업전문학교 등 당시 온 나라의 수많은 대학, 전문학교, 초고급중학교 등에서 청년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이 전선으로 탄원하였다.

평양남도 순천군(당시)에서는 군내 전체 청년의 80%이상이

인민군대 입대를 탄원하였다.

당시 《로동신문》은 《74만 명의 애국청년들 북반부에서 전선출동을 탄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전하였다.

《공화국북반부청년들은 불타는 애국심으로 전선출동을 계속 탄원해나서고있다. 지난 6월말현재로 전선출동을 탄원한 청년들은 74만명을 돌파하여 온 나라의 남들로서가 모두 떨쳐나선것으로 하여 영웅적인민군대의 승리적전진과 함께 그 수는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전선탄원의 소망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과 소년들, 부녀자들, 로인들은 또 그들대로 전선으로 나간 청장년들이 있던 자리를 차지하였으며 군기금원남운동들 적극 벌려

공화국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민청호》, 《대학생호》, 《녀성호》, 《소년호》 등의 이름을 단 비행기와 땅크 그리고 합선들을 인민군대에 헌납할것을 결의하고 그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그러하여 전쟁이 일어난 후 불과 한달 남짓한 기간에 헌납된 전기구출액은 1억 7 449만 7 000여원, 8월 말까지는 무려 4억원이상에 달하였다.

투에 참가할것을 열렬히 자원하고있는 이들, 피끓는 애국청년들은 김일성장군님께 드리는 탄원서들에서 조국방위를 위한 헌신적애국심과 원수들에 대한 적개심을 피력하였다.

전선탄원운동에는 청년학생들뿐 아니라 로동자, 농민들을 비롯하여 온 나라의 남들로서가 모두 떨쳐나선것으로 하여 영웅적인민군대의 승리적전진과 함께 그 수는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전선탄원의 소망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과 소년들, 부녀자들, 로인들은 또 그들대로 전선으로 나간 청장년들이 있던 자리를 차지하였으며 군기금원남운동들 적극 벌려

공화국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민청호》, 《대학생호》, 《녀성호》, 《소년호》 등의 이름을 단 비행기와 땅크 그리고 합선들을 인민군대에 헌납할것을 결의하고 그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그러하여 전쟁이 일어난 후 불과 한달 남짓한 기간에 헌납된 전기구출액은 1억 7 449만 7 000여원, 8월 말까지는 무려 4억원이상에 달하였다.

이렇듯 미국에 의해 조선전쟁이 일어나자 온 나라는 《조국보위의 노래》를 높이 울리며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는 전민항쟁의 싸움터로 변하였으며 공화국인민은 그 가렬한 전장에서 피와 살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싸우는 불굴의 투사들로 되었다.

당시 조선전쟁을 종군한 오스트랄리아의 한 기자는 전체 인민이 성전에 떨쳐나선 이 경이적인 사실에 경탄하여 《이 기이한 전쟁》이라는 소책자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전쟁이 시작된 최초의 여섯 주사이에 120만명의 청년남녀들이 조선인민군 지원병부대 또는 빨찌산부대에 자원하였다. 그 가운데 40만명은 남에서 온 사람들이였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의 전투적호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전국적범위에서 벌어진 전선탄원운동은 다시는 제국주의노예가 되는것을 원치 않는 조선인민의 민족자주정신의 분출이었으며 목숨보다 더 귀중한 나라와 민족의 자존권을 빼앗으려는 침략자들에게 대한 활화산같은 분노의 폭발이었다.

리 일 현

이렇듯 미국에 의해 조선전쟁이 일어나자 온 나라는 《조국보위의 노래》를 높이 울리며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는 전민항쟁의 싸움터로 변하였으며 공화국인민은 그 가렬한 전장에서 피와 살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싸우는 불굴의 투사들로 되었다.

당시 조선전쟁을 종군한 오스트랄리아의 한 기자는 전체 인민이 성전에 떨쳐나선 이 경이적인 사실에 경탄하여 《이 기이한 전쟁》이라는 소책자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전쟁이 시작된 최초의 여섯 주사이에 120만명의 청년남녀들이 조선인민군 지원병부대 또는 빨찌산부대에 자원하였다. 그 가운데 40만명은 남에서 온 사람들이였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의 전투적호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전국적범위에서 벌어진 전선탄원운동은 다시는 제국주의노예가 되는것을 원치 않는 조선인민의 민족자주정신의 분출이었으며 목숨보다 더 귀중한 나라와 민족의 자존권을 빼앗으려는 침략자들에게 대한 활화산같은 분노의 폭발이었다.

리 일 현

이렇듯 미국에 의해 조선전쟁이 일어나자 온 나라는 《조국보위의 노래》를 높이 울리며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는 전민항쟁의 싸움터로 변하였으며 공화국인민은 그 가렬한 전장에서 피와 살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싸우는 불굴의 투사들로 되었다.

당시 조선전쟁을 종군한 오스트랄리아의 한 기자는 전체 인민이 성전에 떨쳐나선 이 경이적인 사실에 경탄하여 《이 기이한 전쟁》이라는 소책자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전쟁이 시작된 최초의 여섯 주사이에 120만명의 청년남녀들이 조선인민군 지원병부대 또는 빨찌산부대에 자원하였다. 그 가운데 40만명은 남에서 온 사람들이였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의 전투적호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전국적범위에서 벌어진 전선탄원운동은 다시는 제국주의노예가 되는것을 원치 않는 조선인민의 민족자주정신의 분출이었으며 목숨보다 더 귀중한 나라와 민족의 자존권을 빼앗으려는 침략자들에게 대한 활화산같은 분노의 폭발이었다.

리 일 현

이렇듯 미국에 의해 조선전쟁이 일어나자 온 나라는 《조국보위의 노래》를 높이 울리며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는 전민항쟁의 싸움터로 변하였으며 공화국인민은 그 가렬한 전장에서 피와 살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싸우는 불굴의 투사들로 되었다.

당시 조선전쟁을 종군한 오스트랄리아의 한 기자는 전체 인민이 성전에 떨쳐나선 이 경이적인 사실에 경탄하여 《이 기이한 전쟁》이라는 소책자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전쟁이 시작된 최초의 여섯 주사이에 120만명의 청년남녀들이 조선인민군 지원병부대 또는 빨찌산부대에 자원하였다. 그 가운데 40만명은 남에서 온 사람들이였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의 전투적호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전국적범위에서 벌어진 전선탄원운동은 다시는 제국주의노예가 되는것을 원치 않는 조선인민의 민족자주정신의 분출이었으며 목숨보다 더 귀중한 나라와 민족의 자존권을 빼앗으려는 침략자들에게 대한 활화산같은 분노의 폭발이었다.

리 일 현



# 미국은 조선전쟁의 도발자

1950년 6월 25일, 그날은 평화로운 일요일이었다. 전날인 6월 24일부 《로동신문》 1면에는 《로동법령실시 4주년》이라는 제목의 사설이 게재되었다. 사설은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의 령도밑에 로동법령이 실시된 후 4년만에 공화국북반부 로동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이 공화국정부의 일상적인 배려에 의하여 비약적으로 향상되고있다고 전하였다.

또한 모든 근로자들이 이미 정취한 로동법령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할것이며 조국의 평화화동일을 위하여, 남북반부 로동계급과 전체 인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게 하기 위하여 2개년경제계획의 기간단축 및 초과완수의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릴것을 호소하였다.

3면에 실린 보도기사 《해마다 확장되는 북반부 각 정류소시설》에서는 공화국의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이 해금강, 삼방, 주을(당시) 등 공화국북반부 각지의 여러 명승지에 설치된 정류소와 휴양소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있는데 대하여 보도하면서 석양사, 해금강, 묘향산 등 16곳에 근로자들을 위한 정류소가 개설되어 수만명의 수용능력을 갖춘데 대하여 전하였다. 보도사설이 공장들마다에선 창고의 마차소리 놀이 울리고 농촌에서는 농민들이 푸르싱싱한 벼포기를 바라보며 흘러내리는 땀마저도 기쁨에 넘쳐 내리뒀던 이 땅이었다.

자기들을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김일성장군님의 은덕에 보답하고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일하던 인민들이었다.

하지만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새 생활이 약동하던 평화로운 이 나라 강토에 전쟁의 참화를 들씌워 인민들의 행복한 삶을 장그려 짓밟았다. 그것도 평화로운 일요일의 그 새벽에.

6월 25일 새벽 4시, 아직도 단잠에 들어 꿈에 도취된 아이들의 입가에 행복의 웃음기가 어려있었을 그 시각이었다.

일요일의 휴식계획을 밤새도록 토론하며 레일의 희망을 속삭였을 청춘남녀들, 새벽잠이 없었던 로인들마저도 잠에 들었을 그 시각이었다.

평온했던 일요일의 그 새벽에 미제와 그 주구인 리승만역적패당은 순박하고 선량한 인민의 기쁨과 꿈을 짓밟고 그들의 머리에 전쟁의 참화를 들씌웠다.

이날 이른새벽 남조선피괴군은 미리 준비된 침략전쟁도발계획에 따라 미군교문들의 지휘밑에 38°선전역에 걸쳐 공화국에 대한 불의의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침략자들은 해주, 금천, 철원 및 그밖의 여러 방향들에서 38°선이북지역으로 1~2km까지 쳐들어왔다.

이에 대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무성은 공화국경비대에 38°선이북지역으로 침입한 적들을 격퇴할것을 명령하였다. 공화국경비대는 모든 진지와 초소들에서 적들과 대항하여 가렬한 전투를 벌리었다.

공화국정부의 위임에 따라 공화국내무성은 보도를 발표하여 리승만피괴도당에게 모험적인 전쟁행위를 즉시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만약 38°선이북지역에 대한 모험적인전쟁행위를 즉시 중지하지 않는다면 결정적대처를 취하게 될것이며 동시에 이 모험적인전쟁행위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엄청난 결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되리라는것을 엄중히 경고하였다.

하지만 공화국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은 전쟁의 불길들을 더욱 확대하는 길로 나갔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인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6월 2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비상회의를 여시고 조국에 조성된 엄청난 사태에 대처하여 적들의 무력침공을 저지시키고 호한 대책을 취하시였으며 공화국경비대와 인민군대가 적들의 무력침공을 저지시키고 즉시 반공격으로 넘어갈것을 명령하시였다.

치렬한 방어전을 전개하여 적들의 침공을 좌절시킨 공화국경비대는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인민군부대들과 협동작전밑에 38°선이북지역에 침입한 적들을 완전히 격퇴하고 원수들을 무찌르며 반공격으로 넘어갔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 의하여 강요된 이 전쟁은 공화국인민에게 있어서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존엄을 고수하느냐 아니면 미제의 식민지노예가 되느냐 하는 판가리싸움이었으며 가장 존엄한 시련이였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요일에 시작된 이 전쟁이 그날로부터 삼파죽음, 피와 눈물, 사랑과 중으로 이어지는 1 129일간이나 지속될 줄은 그때까지는 아직 그 누구도 알수 없었다.

본사기자 김철진

남조선을 침략적군사기지로 전변시킨 미국은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키는 길로 나아갔다.

미국은 세계적규모에서 전쟁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새 전쟁의 도발지점을 조선반도에서 찾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음모는 이른바 《엔 에스 씨(미국가안전 보장회의의 약칭)-68》라고 불리는 비밀전략계획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엔 에스 씨-68》은 1950년 1월 트루먼의 지시에 따라 미국무부와 미합중참모본부의 련합위원회에서 작성되어 4월 2일에 미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비준된 전쟁도발을 위한 전략계획이었다.

조선에서 전쟁도발을 위한 기본 전략을 확정함과 함께 미국은 조선전쟁도발을 위한 정책적방향을 이 정책적방향은 1950년 1월 12일 미국무장관의 《대아시아정책연설》이라는 데서 공식적으로 선포되었다.

이자는 《공산주의위협》과 결사기 위한 아시아에서의 《군사적안전문제》는 알류산열도-일본본토-오기나와-필리핀을 련결하는 《방위선》에 의해서 담보될것이라고 떠벌이였다.

이 이른바 《방위선》에 남조선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남조선에 있어서의 우리의 책임》은 보다 직접적인것》이라는 유엔에 의해서 담보될것이라고 공공연히 뇌거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흉악성과 교활성을 그대로 드러내놓는것이다.

이자가 들어나온 계획은 조선에서의 전쟁도발을 리승만역도를 하수인으로 내세워 감행하며 이 침략전쟁에서의 저들의 《보따를 나누어 줄것을 약속하였던》을 유엔의 간판에 도용하여 실현할것을 예견하고있었다.

이 모략적계획은 조선에 대한 침략자로서의, 조선전쟁도발자로서의 자기의 침략적정책을 세계 여론앞에서 가리우며 유엔의 《경찰행동》에 참가한다는 명목밑에 침략전쟁을 감행하려는 음흉한 목적의 산물이었다.

미국의 전쟁도발계획은 이처럼 리승만도당이 침략전쟁을 도발케 한 후 유엔의 간판밑에 미제침략군의 직접적개입을 실현하고 조선과 나아가서는 여러 지역에서 침략전쟁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본본토, 오기나와를 비롯한 태평양의 기지들을 더욱더 강화하며 특히 일본을 침략전쟁의 공격기지, 보급기지, 후방기지로 리용하려는 것이였다.

이른바 새로운 《방위선》계획으로 표방된 미국의 이러한 전쟁도발계획은 1950년 1월에 공식적인 미국무부의 정책으로 표명되었다.

미국은 이른바 《방위선》이라고 부른 저들의 침략전쟁기지를 서도 전쟁도발을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다그쳤다.

1949년 6월에 맥아더사령부는 미제침략군 제8군의 재편성계획을 발표하고 7월부터 그 실현에 착수하였으며 9월부터는 실제에 대응한 전면적훈련을 시작하였다.

1950년 1월말~2월초에 걸쳐 일본에 기어든 미합중참모본부의 장, 특근참모총장, 해군작전부장, 육군참모총장은 일본에 있는 미제침략군(제8군, 제7함대, 제5공군)의 전투준비를 시찰하고 맥아더와의 회담을 가지고 미제침략군태평양사령부의 구성을 변경하여 긴급상태 혹은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서태평양의 전체 미군이 미국동군 사령관인 맥아더의 지휘밑에 들어가며 평시에도 일본해역에 들어온 제7함대를 맥아더의 지휘밑에 둔다는것을 결정하였다.

미국은 세계적규모에서 전쟁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새 전쟁의 도발지점을 조선반도에서 찾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음모는 이른바 《엔 에스 씨(미국가안전 보장회의의 약칭)-68》라고 불리는 비밀전략계획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이 이른바 《방위선》에 남조선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남조선에 있어서의 우리의 책임》은 보다 직접적인것》이라는 유엔에 의해서 담보될것이라고 공공연히 뇌거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흉악성과 교활성을 그대로 드러내놓는것이다.

이자가 들어나온 계획은 조선에서의 전쟁도발을 리승만역도를 하수인으로 내세워 감행하며 이 침략전쟁에서의 저들의 《보따를 나누어 줄것을 약속하였던》을 유엔의 간판에 도용하여 실현할것을 예견하고있었다.

이 모략적계획은 조선에 대한 침략자로서의, 조선전쟁도발자로서의 자기의 침략적정책을 세계 여론앞에서 가리우며 유엔의 《경찰행동》에 참가한다는 명목밑에 침략전쟁을 감행하려는 음흉한 목적의 산물이었다.

미국의 전쟁도발계획은 이처럼 리승만도당이 침략전쟁을 도발케 한 후 유엔의 간판밑에 미제침략군의 직접적개입을 실현하고 조선과 나아가서는 여러 지역에서 침략전쟁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본본토, 오기나와를 비롯한 태평양의 기지들을 더욱더 강화하며 특히 일본을 침략전쟁의 공격기지, 보급기지, 후방기지로 리용하려는 것이였다.

이른바 새로운 《방위선》계획으로 표방된 미국의 이러한 전쟁도발계획은 1950년 1월에 공식적인 미국무부의 정책으로 표명되었다.

미국은 이른바 《방위선》이라고 부른 저들의 침략전쟁기지를 서도 전쟁도발을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다그쳤다.

1949년 6월에 맥아더사령부는 미제침략군 제8군의 재편성계획을 발표하고 7월부터 그 실현에 착수하였으며 9월부터는 실제에 대응한 전면적훈련을 시작하였다.

1950년 1월말~2월초에 걸쳐 일본에 기어든 미합중참모본부의 장, 특근참모총장, 해군작전부장, 육군참모총장은 일본에 있는 미제침략군(제8군, 제7함대, 제5공군)의 전투준비를 시찰하고 맥아더와의 회담을 가지고 미제침략군태평양사령부의 구성을 변경하여 긴급상태 혹은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서태평양의 전체 미군이 미국동군 사령관인 맥아더의 지휘밑에 들어가며 평시에도 일본해역에 들어온 제7함대를 맥아더의 지휘밑에 둔다는것을 결정하였다.

미국은 세계적규모에서 전쟁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새 전쟁의 도발지점을 조선반도에서 찾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음모는 이른바 《엔 에스 씨(미국가안전 보장회의의 약칭)-68》라고 불리는 비밀전략계획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이 이른바 《방위선》에 남조선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남조선에 있어서의 우리의 책임》은 보다 직접적인것》이라는 유엔에 의해서 담보될것이라고 공공연히 뇌거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흉악성과 교활성을 그대로 드러내놓는것이다.

이자가 들어나온 계획은 조선에서의 전쟁도발을 리승만역도를 하수인으로 내세워 감행하며 이 침략전쟁에서의 저들의 《보따를 나누어 줄것을 약속하였던》을 유엔의 간판에 도용하여 실현할것을 예견하고있었다.

이 모략적계획은 조선에 대한 침략자로서의, 조선전쟁도발자로서의 자기의 침략적정책을 세계 여론앞에서 가리우며 유엔의 《경찰행동》에 참가한다는 명목밑에 침략전쟁을 감행하려는 음흉한 목적의 산물이었다.

미국의 전쟁도발계획은 이처럼 리승만도당이 침략전쟁을 도발케 한 후 유엔의 간판밑에 미제침략군의 직접적개입을 실현하고 조선과 나아가서는 여러 지역에서 침략전쟁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본본토, 오기나와를 비롯한 태평양의 기지들을 더욱더 강화하며 특히 일본을 침략전쟁의 공격기지, 보급기지, 후방기지로 리용하려는 것이였다.

이른바 새로운 《방위선》계획으로 표방된 미국의 이러한 전쟁도발계획은 1950년 1월에 공식적인 미국무부의 정책으로 표명되었다.

미국은 이른바 《방위선》이라고 부른 저들의 침략전쟁기지를 서도 전쟁도발을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다그쳤다.

1949년 6월에 맥아더사령부는 미제침략군 제8군의 재편성계획을 발표하고 7월부터 그 실현에 착수하였으며 9월부터는 실제에 대응한 전면적훈련을 시작하였다.

1950년 1월말~2월초에 걸쳐 일본에 기어든 미합중참모본부의 장, 특근참모총장, 해군작전부장, 육군참모총장은 일본에 있는 미제침략군(제8군, 제7함대, 제5공군)의 전투준비를 시찰하고 맥아더와의 회담을 가지고 미제침략군태평양사령부의 구성을 변경하여 긴급상태 혹은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서태평양의 전체 미군이 미국동군 사령관인 맥아더의 지휘밑에 들어가며 평시에도 일본해역에 들어온 제7함대를 맥아더의 지휘밑에 둔다는것을 결정하였다.

미국은 세계적규모에서 전쟁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새 전쟁의 도발지점을 조선반도에서 찾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음모는 이른바 《엔 에스 씨(미국가안전 보장회의의 약칭)-68》라고 불리는 비밀전략계획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이 이른바 《방위선》에 남조선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남조선에 있어서의 우리의 책임》은 보다 직접적인것》이라는 유엔에 의해서 담보될것이라고 공공연히 뇌거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흉악성과 교활성을 그대로 드러내놓는것이다.

이자가 들어나온 계획은 조선에서의 전쟁도발을 리승만역도를 하수인으로 내세워 감행하며 이 침략전쟁에서의 저들의 《보따를 나누어 줄것을 약속하였던》을 유엔의 간판에 도용하여 실현할것을 예견하고있었다.

이 모략적계획은 조선에 대한 침략자로서의, 조선전쟁도발자로서의 자기의 침략적정책을 세계 여론앞에서 가리우며 유엔의 《경찰행동》에 참가한다는 명목밑에 침략전쟁을 감행하려는 음흉한 목적의 산물이었다.

미국의 전쟁도발계획은 이처럼 리승만도당이 침략전쟁을 도발케 한 후 유엔의 간판밑에 미제침략군의 직접적개입을 실현하고 조선과 나아가서는 여러 지역에서 침략전쟁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본본토, 오기나와를 비롯한 태평양의 기지들을 더욱더 강화하며 특히 일본을 침략전쟁의 공격기지, 보급기지, 후방기지로 리용하려는 것이였다.

이른바 새로운 《방위선》계획으로 표방된 미국의 이러한 전쟁도발계획은 1950년 1월에 공식적인 미국무부의 정책으로 표명되었다.

미국은 이른바 《방위선》이라고 부른 저들의 침략전쟁기지를 서도 전쟁도발을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다그쳤다.

1949년 6월에 맥아더사령부는 미제침략군 제8군의 재편성계획을 발표하고 7월부터 그 실현에 착수하였으며 9월부터는 실제에 대응한 전면적훈련을 시작하였다.

1950년 1월말~2월초에 걸쳐 일본에 기어든 미합중참모본부의 장, 특근참모총장, 해군작전부장, 육군참모총장은 일본에 있는 미제침략군(제8군, 제7함대, 제5공군)의 전투준비를 시찰하고 맥아더와의 회담을 가지고 미제침략군태평양사령부의 구성을 변경하여 긴급상태 혹은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서태평양의 전체 미군이 미국동군 사령관인 맥아더의 지휘밑에 들어가며 평시에도 일본해역에 들어온 제7함대를 맥아더의 지휘밑에 둔다는것을 결정하였다.



## 《한반도 전쟁주범 주한미군은 철수하라!》, 《역도퇴진만이 전쟁을 막는 해법》 - 남조선에서 전쟁책동을 규탄하는 대중투쟁 광범히 전개 -

지난 15일 《화력격멸훈련반대 대학생농성단》이 경기도 포천의 전쟁연습장에서 모임을 가지고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의 전쟁도발기도를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나갈것을 선언하였다.

발언자들은 대학생들이 투쟁에 나선 이유는 단 하나 전쟁을 막기 위해서이다. 윤석열은 평화를 바라는 민중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미국과 일본의 전쟁돌격대역할을 하고있다. 윤석열을 한시바삐 심판하여 평화의 새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가자들은 멸망을 막아보려고 최후발악하며 전쟁을 일으키려는

사찰의 주범 미군을 철수시키고 윤석열을 퇴진시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낭독하고 《한반도 전쟁주범 주한미군은 철수하라!》, 《윤석열을 몰아내고 전쟁을 평화로 바꾸자!》고 외쳤다.

한편 1 110개 시민사회단체가 서울에서 집회를 열고 시국선언을 하였다.

선언은 지금이 《안보》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동맹강화와 대결책동에 매달리며 민족에게 핵참화를 들씌우려는 윤석열을 한시바삐 퇴진시켜야 할 시국이라고 주장하였다.

참가자들은 《윤석열(정부)의 전쟁조장, 평화괴뢰, 망국외교를 심판하자》, 《전쟁훈련,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한미일동맹 반대한다!》, 《윤석열(정부) 전쟁정책 심판하자》고 웨치며 초불시진과 연대투쟁을 벌려나갈 의지를 피력하였다.

대전지역에서도 시민단체들이

전쟁발발의 위험을 증폭시키는 전쟁연습을 중단시키고 역도를 퇴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절차가 들어가야 한다고 하였다.

참가자들은 《역도퇴진만이 전쟁을 막는 해법》이라고 한결같이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전쟁발발의 위험을 증폭시키는 전쟁연습을 중단시키고 역도를 퇴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절차가 들어가야 한다고 하였다.

참가자들은 《역도퇴진만이 전쟁을 막는 해법》이라고 한결같이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 매국노들은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

최근 윤석열역적패당의 친일골종행위는 남조선 각계층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조선강점의 40여년간 가장 잔인무도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며 수천만의 우리 민족에게 고통과 재난, 죽음을 강요하고 시효가 없는 특대형반인륜범죄를 저지르고도 일말의 사죄와 반성도 하지 않는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 족속들이 바로 섬나라것들이 아니다.

그러나 역적패당은 제멋대로 섬나라것들의 죄악을 무마해주고 재침의 칼을 버려온 친년속적의 길잡이, 디딤돌이 되어 남조선에 끌어들이는 것도 모자라 조선반도를 통째로 섬겨주려는 매국배족의 대죄악을 감행하고있다.

역적패당의 친일사대매국죄악의 근원은 다른데 있지 않다. 친일에서 잉태되고 번식되었으 며 해방후에도 친일사대매국을

권력부지의 명줄로 삼아온 제 조상들의 죄악에 뿌리를 두고 있다.

1965년 6월 《유신》독재자가 섬나라것들과 남조한 남조선일본 《협정》이 그 대표적실례라고 할 수 있다.

《5.16군사쿠데타》로 권력을 가로챈 《유신》독재자는 미국상 전의 지령밑에 《한일관계가 지금까지 부자연한 상태를 계속해 온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수 없다. (정부)는 한일회담을 년내에 일괄결정할 방침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다.》고 떠벌이면서 범죄적인 남조선일본 《협정》조작에 미쳐날뛰었다.

《유신》독재자는 남조선일본 《협정》에서 일제의 강제 《합병》에 대한 원천무효와 식민지통치에 대한 사죄, 배상은 요구조차 하지 않았으며 섬나라것들의 과거청산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중국적

으로》 타결하는 천추에 용납 못할 반역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강요한 모든 죄악들을 덮어두고 과거의 역사를 또다시 되풀이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 대가로 겨우 푼돈을 구걸하여 받고도 그것을 《치적》으로 광고한 《유신》독재자와 그 패당들이다. 지어 역적패당은 섬나라것들이 《1905년의 (조약) 이래 60년만에 다시 돌아온 이해 을사년을 영광의 을사년으로 하자.》고 떠벌이자 《을사년에 리완용은 영광의 역사를 열어놓았다면 우리의 협정은 향후 백년의 영광의 역사를 열것이다.》라는 매국당연으로 맞장구를 치는 추태까지 부리었다.

일제의 식민지통치당시 《다 가까이 마사오》로 《창씨개명》을 하였던 친일매국노 《유신》독재자에 의하 지 않았으며 섬나라것들의 과거청산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중국적

6월 22일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남조선일본 《협정》의 조작으로 끝나게 되었다.

하기에 당시 남조선에서는 일본과의 범죄적인 회담을 벌려놓고 《협정》이라는것까지 조작한 박정희매국 《정권》을 규탄배격하는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대규모투쟁이 매일과 같이 계속되었으며 《유신》독재자는 종당에 비참한 최후를 맞고말았다.

지금 섬나라것들은 58년전에 조작된 남조선일본 《협정》을 구실로 삼으며 피어난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요구를 묵살해치우면서 수십년동안 버려온 재침의 칼을 치켜 들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역적패당은 2018년 남조선 《대법원》이 일본의 전범기업에게 강제동원피해 자들에 대한 배상관계를 내린것을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과 모

순된다, 일본은 침략자에서 《동반자》로 되었다, 과거를 덮고 미래에 나가겠다고 황실수설하면서 저들의 친일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고있는것이다.

자기의 임기중에 쌍방관계를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이후 제일 좋게 만들고싶다고 떠벌인 윤석열역적패당이 남조선 각계층으로부터 《윤제양》, 《윤완용》으로 지탄받고 퇴진압력을 시달리고있는것은 응당하다.

일본이 과거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온갖 범죄만행들을 비호두둔하면서 섬나라것들의 군사적재침책동을 발뺌고 도와주고있는 윤석열역적패당이 몇푼의 돈에 민족의 존엄과 리의를 팔아먹은 《유신》독재자를 훨씬 통가하는 특등 친일매국노가 아닐수 없다.

이런 매국노가 갈 곳은 역사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대뿐이다.

본시기자 김정혁

## 전쟁머슴들인 부질없는 객기

남조선호전세력의 전쟁불장난소동이 날이 갈수록 빈번해지고있다.

지난 8일에도 호전세력들은 부산해군기지에서 전투기와 함선, 장갑차, 무인수상정 등 각종 첨단전쟁장비들을 동원하여 해상유무인복합전투체계를 적용한 상륙작전시범훈련을 벌려놓는데 이어 9일에는 미육군 화생방부대것들과 대량살무기대응을 위한 훈련훈련을 강화한것이다.

반공화국대결책동이 정신착란이상 의 광적인 증세로 넘어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남조선호전세력이 단독으로, 외세와 연합하여 벌린 전쟁연습만 하여도 꼽아보기 힘든 정도이다.

외세의 전략자산까지 끌어들이며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를 핏물로 물구름으로 어지럽히는것도 모자라 해외에까지 나아가 전쟁대결에 날뛰고있는 남조선호전세력이다.

호전세력이 외세와 연합하여 각종 전쟁연습들을 강화하면서 그 무슨 《위협》과 《도발》을 구실로 내내지만 이번엔 강화한 전쟁연습들의 명칭이나 동원된 무장장비들이 실증해 주듯이 어느것이나 공화국에 대한 침략적성격이 완

연하다.

상륙작전이 《방어적》일수 없고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전쟁연습이 언제 실전으로 넘어가지 않겠다고 누구도 예단할수 없다.

남조선호전세력이 항공모함이나 핵전략잠수함 등 미전략자산을 수시로 끌어들이고 거기에 탑재된 무장장비들의 성능에 대해 선전하면서 공화국이 《위협》을 느꼈기라고 여러 차례 광고한것도 사실이다.

현실이 보여주고 사실자료들이 실증해 주듯이 위협이 나 도발은 외세를 등에 업은 남조선호전세력이 자행하고있다.

호전세력이 첨단무기개발에 혈세를 쏟아붓고 그것들로 전쟁연습들을 수시로 벌리는것은 공화국의 가공할 군사적위력에 대비해볼수 없는 저들의 군사적열세를 만회해보려는 부질없는 발버둥질에 불과하다.

외세와 연합하여 부침전쟁 준비를 다그치고 완비함으로써 공화국과 거이코 힘으로 맞서보겠다는 어리석은 객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것은 제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결과만 초래하게 될것이다.

《미일의 전쟁동격대 윤석열퇴진!!》, 《한반도의 전쟁위기, 이대로는 안된다. 평화를 위해 모두 나서자》, 《전쟁위기의 주범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이것은 남조선 각계층의 의지와 실천행동이다.

남조선호전세력은 무분별하게 벌리는 전쟁연습이 어떤 파국후폭파로 이어지게 될것인가를 민심의 목소리를 통해 깨달아야 한다.

장수국



**말 말 말)) 개탄과 분노의 목소리**

— 《집권 1년을 보낸 윤석열 (정권)이 반민중, 반민중, 친제법정제를 쏟아내고 있다. 이에 저항하는 민중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중해방을 외쳤던 렬사들의 정신을 계승하자.》(6월인민항쟁 기념 제32회 민족민주렬사, 희생자 범국민추모제의 연설문중에서)

— 《(독재라도 민주쟁취)를 쫓던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불참한 리유가 (정권퇴진후) 때문이라니 이 무슨 웃지 못할 렬사의 모순인가.》(6월인민항쟁 기념식을 주최하던 《행정안전부》와 《국민의 힘》것들이 참가를 거부한데 대한 남조선인론의 비평중에서)

**단평 《어디로 갈 것인가》**

얼마전 서울에서 《윤석열이 오염수다》라는 주제로 초불집회가 열린 가운데 수만명의 참가자들이 《윤석열이 처리수다!》, 《윤석열이 그 자체가 백해무익한 핵오염수다.》, 《윤석열핵오염수를 방류해야 한다.》고 하면서 규탄과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인문도덕이라고는 표본만 큼도 없는 섬나라것들의 후안무치한 핵오염수방류책동을 반대해나설 대신 오히려 일본편에 서서 적극 비호두둔하고있는 윤석열역적패당이 얼마나 역겨웠으면

지금 철면피한 일본이 세계의 면전에서 뼈저리게 저지르고있는 윤석열역적패당은 일본것들의 이 반인륜적책동을 묵인비호하고 있다.

물고기는 대가리부터 썩는다고 윤석열역적패당이 이렇게 친일에 썩어들어가고 있다. 《국민의 힘》것들 역시 《일본의 핵오염수에 의한 피해는 절대로 없다.》, 《수산물의 안전을 담보한다.》, 《핵오염수를 직접 마시겠다.》고 망동을 부려대고있다.

이런 어망치망한 일을

연생태계를 해칠 치명적인 범죄만행도 서슴지 않으려는 섬나라것들이나 그에 맞

장구를 치는 윤석열역적패당이나 다같이 인류에게 백해무익한 존재들, 인간의



**《어디로 갈 것인가》 이란해도여야 하는 10가지 리유**

최근 남조선언론 《서울의 소리》가 《윤석열 (정권)이 탄핵되어야 하는 10가지 리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언론은 남조선정치사상 윤석열 《정권》만큼 비렬하고 무능하며 무지하고 잔인한 《정권》을 없었다고 하면서 역대 《정부》들마다 특징이 있지만 윤석열 《정권》처럼 총체적으로 부실한 《정권》은 없었다는것이 정설이라고 주장하였다.

1. 무나진 《공정》과 《상식》  
윤석열역적패당은 《검사가 수사로 보복하면 그게 장폐이지 검사입니까?》 하면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떠들떠니 지금은 170여가지나 되는 자기와 제 가족의 부정부패혐의는 모두 덮어버리고 대부분 혐의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2. 외교파탄  
역도는 외교를 한답시고 결핍하면 해외로 나갔지만 미국을 찾아가서는 《인플레이션억제법》을 해결하지 못하고 《퍼주기》비난만 받았으며 굴욕적인 일제강제징용피해자배상방안을 강압적으로 발표하도록 하고 조선반도유사사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3. 경제파탄  
역도는 15개월동안 련속 무역적자를 내고 주민들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난방비상승으로 허덕이고있으나 《주민복지》관련예산을 줄이고 부자들 과 대기업들의 세금감소해주어 자영업자들속에서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항의가 비발치고 자살자가 계속 증가하고있는 형편이다.

4. 《안보》파탄  
《선제타격》, 《싸드》추가배치 등을 떠들며대다가 강릉에서 북으로 발사한 미사일들이 되돌아와 남쪽군부대를 타격하였으며 그 주제에 다른 나라에 수십억US\$를 준다고 하니 기가 막히다.

5. 《탄압공화국》  
윤석열 《정권》은 건설로조를 《진폭》(《건설폭력배》)으로 락인하여 경찰이 로동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류렬사태를 초래하였으며 《MBC》에 대한 압수수색과 《YTN》의 민영화 등 언론장악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있다.

6. 《검찰공화국》  
역도는 130여명의 검찰출신들을 《정부》요직에 임명하였으며 지어 《금융감독원》 원장과 《년금공사》 리사직에도 검찰출신을 올려놓아 제 녀편네의 《도이치모터스주조사건》 등을 무마시키려 하고있다.

7. 《무속공화국》  
역도는 《대통령》선거때부터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새기고다녀 물의를 일으켰고 그후에도 해외에서의 조의표시, 《대통령실》과 판지정정에 대한 《천공스님》의 개입으로 《무속공화국》이라는 말을 듣고있다.

8. 《잡사공화국》  
역도의 집권후 백수심명이 한꺼번에 사망한 특대형사고가 일어났지만 결과지만 자르고 정작 기본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 청장은 비호하였다.

9. 《국회》무시  
역도는 《국회》에서 의결한 《양곡관리법개정안》과 《간호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정부》시행령들을 망나니의 칼처럼 휘두르고있는데 이를 명백한 탄핵행위이다.

10. 오만불손한 태도  
역도는 지지률이 20%대까지 내려가도 안하무인적인 태도를 보였고 주민들이 뒤라고 하는 검찰만 믿고 칼을 휘두르고있지만 칼로 흥한자는 칼로 망한다. 결국 언론은 남조선정치사상 이렇게 많은 탄핵리유가 있는 《정권》은 없을것이다. 민심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고 피력하였다.

본시기자

## 암흑의 땅에서 세차게 타오르는 항쟁의 불길

지난 5월 1일 남조선에서 한 건설로조원이 생존권을 요구하는 건설로조성원들을 《진폭》(《건설폭력배》)으로 매도하며 탄압하는 윤석열역적패당에게 항거하여 분신자살을 시도하였고 다음날 2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알려진것처럼 윤석열역적패당은 《민주로총》소속 건설산업로동조합원들이 로동의 권리와 안전한 작업환경을 요구한다고 하여 《건설폭력배》라고 모독하며 파썸경찰을 내몰아 류렬적으로 탄압하고있다. 역적패당의 이 파썸적폭거에 맞서 건설산업로조는 물론 《민주로총》산하의 로조들과 《한국로총》이 반윤석열투쟁에 떨쳐나서고있고 이러한 속에 건설로조의 한 성원이 반로동정책에 항거

하여 분신자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것이다.

남조선로동계의 반윤석열, 반 《정부》 투쟁은 윤석열역적패당의 반로동정책, 반인민적약정에 대한 쌓이고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은 집권후 《기업위주성장》과 《대기업법인세인화》와 같은 친제법정정책, 반로동정책으로 로동자들의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짓밟는것도 성치 않아 인간다운 삶을 위해 일떠선 로동자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다.

하기에 《민주로총》을 비롯한 로동단체들은 《로동자와 민중을 무시하며 지배세력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윤석열 (정권)은 로동자, 민중이 분명히 투쟁하지 않으면

는 답이 없다.》고 웨치며 반윤석열, 반 《정부》투쟁에 일떠선것이다.

로동계만이 아니라, 각계층 인민들도 역적패당의 친미친일사대매국행위와 반공화국전제대결책동, 검찰장폐정치와 반민생약정을 반대배격하여 분명히 떨쳐나서고있다.

《이대로 살수 없다.》, 《윤석열은 몰아내라.》, 바로 이것이 오늘의 남조선민심이다.

본시기자 전명진

